

SMALL CLAUSE 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 CONSIDER 류 동사의 통사론과 의미론

朴 秉 洙

I

최근 GB이론의 배두리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 한 가지 중요한 논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 (1) a. They consider *John intelligent*.
- b. I found *the cage empty*.
- c. They made *him president*.
- d. Does that prove *me wrong*?
- e. What makes *you in such a hurry* ?
- f. I left *the door unlocked*.
- g. Someone liked *it hot*.

이들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통점은 위의 예문에서 이탤릭 체로 된 부분 예컨대 (1a)에서의 *John intelligent*를 하나의 구성 성분 (constituent)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구성 성분을 small clause 라고 부르고 있다. (Williams (1975), Chomsky (1981), Chomsky (1986))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반 구구조 문법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줄여서 GPSG)에 입각하여 GB이론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GPSG의 공식적인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Gazdar, Klein, Pullum & Sag (1985)에서 위 (1)과 같은 문장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 제시할 필자의 견해가 새로운 제안이 되겠다. 그리고 필자의 제안은 GKPS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장·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된다.

먼저 필자의 분석을 제시한 다음 이를 Chomsky(1981, 1986)의 분석과 비교하고 Chomsky의 견해에 비판을 가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1)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유형의 문장들을 검토할 것이다.

II

필자의 제안은 (1a)의 *John intelligent*가 구성 성분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하나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논거는 다음과 같은 so

대용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 (2) a. A: They consider John intelligent.
 b. B: *I consider so too.
 (cf. So do I.)
- (3) a. A: They found the cage empty.
 b. B: *I found so too.
 (cf. So did I.)

민약에 (1)의 [John intelligent] 가 하나의 구성 성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small clause* 이든 *large clause* 이든 하나의 S 라면, 그것이 *so* 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간 예측이다. (2b)와 (3b)는 비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hink* 류의 동사의 *complement clause* 는 *so* 로 대체될 수 있다.

- (4) a. A: They think John is intelligent.
 b. B: I think so too.

John is intelligent 가 하나의 구성 성분이며 그것이 S 이므로 *so* 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think* 의 경우에는 *so* 대체가 가능하고 *consider* 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해당 동사의 보문 절 (*clausal complement*) 의 성질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즉 *think* 의 보문 절은 [+Tense] 이고 *consider* 의 그것은 [-Tense] 이라는 차이가 *so* 대체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반론은 서지 않는다. *Believe* 류의 동사는 [-Tense] 인 *clausal complement* 를 취하지만 *so* 대체가 가능하다.

- (5) a. A: They believe John to be intelligent.
 b. B: I believe so too.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NP AP] 또는 [NP VP] 의 연결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그것의 범주가 S 이면 그것이 *so* 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일반 통칙에 비추어 보아 (1a) 의 *consider* 의 보어인 *John intelligent* 가 *clausal complement* 를 이룬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I think so, I believe so* 등은 가능하고 **I consider so* 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consider* 류의 동사는 *think* 류의 동사와는 의미 구조상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의미적 차이에 관하여 뒤에 다시 논의하겠다.)

(1)문장들의 이델릭 체 부분이 한 구성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영어의 어순과 관련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사절은 물론이고 *clausal comple-*

ment도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

- (6) a. John is intelligent, I think.
b. John to be intelligent, I beli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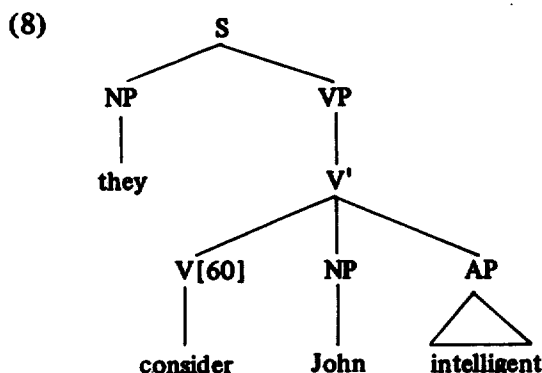
그런데 *consider* 류의 complement는 문두에 올 수 없다.

- (7) a. *John intelligent, they consider.
b. *The cage empty, I found.
c. *Him president, they made.

이 현상이 화제화(topicalization)이든 전치 현상(fronting)이든 간에 문두로 이동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구성 성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Chomsky의 분석에서처럼 [John intelligent] 등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면 (7)의 비문을 설명하기가 심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상 so 대용어 현상과 문두 이동 현상에서 우리는 *consider* 류 동사의 보어인 NP와 AP가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GPSG에 따라 (1a)와 같은 문장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제시하기로 한다.¹



동사 *consider*는 NP와 AP를 하위범주화 한다. 따라서 그것들이 V와 자매 관계(sister)에 있으며 그것들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지 않음은 물론 그것의 범주가 S가 될리도 없다. 이 점이 그대로 (8)수형도에 반영되어 있다. $V' = \langle N, - \rangle, \langle V,$

¹ 이하에서 제시하는 직접 지배 규칙과 수형도는 전반적으로 GKPS(1985)의 것과 대동소이하나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되겠다. BAR 수준이 0, 1 및 2 등 셋인 것은 GKPS와 같으나 동사(즉 V^0)를 지배하는 절점을 $V'' (=VP)$ 가 아니라 V' 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X-BAR 통사론에 더 충실하다고 본다.

+), (BAR, 1)}))가 V와 NP와 AP를 딸 범주 (daughter)로 지배하고 있고 이 세 딸 범주 중 V가 머리 딸 (head daughter)이라는 통사 관계가 나타내져 있다. V [60]은 (⟨N, -⟩, ⟨V, +⟩, ⟨BAR, 0⟩, ⟨SUBCAT, 60⟩)의 줄임으로 하위범주 번호 60을 부여받은 어휘 범주인 동사를 가리킨다. 60번 하위범주에 속하는 동사들은 *consider*, *find*, *leave*, *make* 등등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 규칙이 직접 지배 규칙의 목록에 포함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²

(9) $V' \rightarrow H [60], NP, AP$

대강 이 정도가 *consider* 류의 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의 통사 구조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의 거의 전부이다.

그러면 (1a)에서 *John*이 한 편으로 *consider*의 직접 목적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intelligent*의 주어가 된다는가, [*John intelligent*]가 하나의 명제 (proposition)를 표현하며 다시 그것이 *consider*에 대하여 하나의 논항 (argument)이 된다는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이 문제들은 의미 구조의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해석의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GPSG에서의 의미 구조의 근본 토대는 함수 논항 관계의 수립에 있다.³ 주어진 문장의 함수 논항 관계는 그 문장의 각 구성 성분의 의미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공헌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장의 구성 성분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구 범주 (phrasal category)와 어휘 범주 (lexical category)가 그것이다. 이들 범주들은 제각기 특유의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 속성을 의미 유형 (semantic type) 또는 어휘 유형 (lexical type)이라고 하여 모든 구 범주와 어휘 범주에 부여해 준다. 예를 들어서 VP라는 구 범주는 NP에서부터 S로 가는 함수의 의미 속성을 지닌다. 이를 (NP, S)로 표기한다. NP는 항상 다른 함수에 대하여 논항의 역할을 하는 의미 속성을 지닌다.

어휘 범주들도 자기 특유의 의미 속성을 지닌다. 특히 동사의 어휘 유형이 문장 전체의 의미 구조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kiss*, *love*, *hit* 등 타동사의 어휘 유형은 (NP, ⟨NP, S⟩)이다. 즉 NP에서부터 함수로 가는 함수인데 그 함수는 다시 NP에서부터 S로 가는 함수이다. 간단히 말하면 (NP, VP)라고 표기해도 된다.

그러면 *consider* 류 동사의 어휘 유형은 어떻게 될까? (1a)와 같은 문장에서의

² 직접 지배 규칙 (Immediate Dominance Rules)은 종래의 구구조 규칙 (Phrase Structure Rules)와 비교할 수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직접 지배 규칙은 어순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직접 지배 규칙에는 underspecified categories가 자유로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직접 지배 규칙은 rewriting rules이 아니라 node admissibility conditions이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직접 지배 규칙은 구구조 규칙과는 달리 하나의 규칙이 여러 개의 수행도를 허용한다.

³ GPSG의 의미론은 대체로 Montague Semantics에 의존한다. 이를 생성문법에 맞도록 수정 또는 적용시킨 것이 GPSG의 의미론이다. GKPS (1985) 9장과 10장을 참조하라.

consider 의 어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되겠다.

(10) 〈 AP, 〈 NP, 〈 NP, S 〉〉〉

즉 *consider* 는 AP에서 함수로 가는 함수이다. 전자의 함수는 NP에서 다시 함수로 가는 함수이다. 여기서 최종의 함수는 다시 NP에서 S로 가는 함수이다.

이제 (10)의 어휘 유형이 (8)의 주동사 *consider* 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8) 수형도를 의미적으로 해석하여 함수 논항 관계를 수립할 때 *consider* 의 어휘 유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기계적으로 함수 적용 (functional application) 을 수행할 수 있다.

(8) 수형도의 V' 절점에서의 의미 해석은 *consider* 의 어휘 유형 (10)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수 논항 관계로 나타난다.

(11) f_B (*consider*') (*intelligent*') (John*)

여기서 f_B 는 GKPS에서 combinatoric 이라고 불리는 의미 연산자 (operator) 이다. 이 combinatoric operator 는 이른바 Equi 동사에 부여된다. Equi 동사가 취하는 complement 들이 함수 적용에 참여하는 방식이 보통 동사들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는데 f_B 가 이 점을 설명하게 된다. f_B 는 다음 의미 공준 (meaning postulate)에 의하여 정의된다. (GKPS (1985: 218))

$$(12) \quad \forall \forall \forall \mathcal{S}_1 \dots \mathcal{S}_n \square [f_B (\zeta) (V) (\mathcal{S}_1) \dots (\mathcal{S}_n) \leftrightarrow \mathcal{S}_1 \{ \lambda x [\zeta (V(x^*)) (x^*) (\mathcal{S}_2) \dots (\mathcal{S}_n)] \}]$$

이 의미 공준에 의하여 함수 논항 관계(13)은 다음 (14)의 함수 논항 관계와 동가로 나타내어진다.

(13) f_B (*consider*') (*intelligent*') (John*) (they')

(14) John * { λx [*consider*' (*intelligent*' (x*)) (x*) (they')] }

(14)를 λ 전환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5) *consider*' (*intelligent*' (John*)) (John*) (they')

함수 논항 관계로 표현된 이 의미 해석에서 문장 (1a)의 주어, 직접 목적어 등의 의미 관계가 투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함수 *consider* 는 세계의 논항을 취한다. 첫째 논항이 *intelligent*' (John*)이라는 명제이고 둘째 논항이 John*이다. 마지막 논항이 they'이다. 이를 의사 자연 언어 (quasi-natural language)로 풀어서 말하면 (paraphrase) 다음과 같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16) 'They'가 'John'을 대상으로 하여 'John'이 'intelligent'하다고 'consider'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1a)에서 [*John intelligent*]가 명제가 되고 이 명제가 *consider*의 한 논항이 되고 *John*은 다른 한 편으로 *consider*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을 의미 해석의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통사적으로 *John*과 *intelligent*가 구성 성분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단위가 되어 명제를 표현한다고 분석하는 부분이다. 이는 통사론과 의미론의 분업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GPSG의 이론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GPSG에서는 통사 현상은 통사론에서, 의미 현상은 의미론에서 다룬다는 방법론적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며 양자가 상호 작용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이를 다루는 명백한 정의와 장치가 주어져 있다.

이에 비하면 GB 이론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역할이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Chomsky (1981)과 Chomsky (1986)의 *consider* 구문 구조 분석을 비교 검토해 보면 통사 현상과 의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여하히 뒤섞어 놓고 있는지 드러난다.

처음에 Chomsky (1981)는 (1a)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17) They consider [_{AP} John [_A intelligent]]

여기서 AP는 A의 부영이며 *John*을 주어로 취하므로 [*John intelligent*]는 절이다. 그러나 이 절이 최대 부영 S'로 보지 않고 AP로 본 것은 격 부여 때문이다. *Consider*가 *John*에 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S'장벽이 가로 막고 있으면 *consider*가 *John*에 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S' Deletion을 적용하여 S'를 제거하고 AP가 남으면 *consider*가 *John*에 격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Chomsky (1986)에 와서 S' Deletion 접근을 포기한다. 그대신 barrier(장벽)의 조건에 θ -mark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동사(즉 *consider*와 같은 동사)가 clausal complement를 θ -mark 하면 그 clause는 barrier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1a)의 구조를 아래 (18)과 같이 된다고 보더라도 *consider*가 *John*에 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18) They consider [_S John [_A intelligent]]

*Consider*가 \bar{S} 에 θ -role를 부여하므로 \bar{S} 는 barrier가 아니다. 따라서 *consider*는 *John*을 govern하고 그로 말미암아 *John*에 격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consider*가 \bar{S} 에 θ -role을 부여하면 그 θ -role을 매개로 하여 의미상 \bar{S} 의 주어가 되는 *John*

에 목적격을 부여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아마도 *consider*가 \bar{S} 에 부여하는 θ -role은 'Patient'와 같은 것일 터이고, 이 θ -role은 결국 성질상 목적격과 상통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 θ -role을 매개로 하여 John에 목적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Chomsky의 설명의 저의가 아닌가 싶다.

필자의 이와 같은 추측이 옳다면, *consider*류 동사의 보문 구조에 관한 Chomsky (1981)의 \bar{S} Deletion 설명은 단순히 예외적 현상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는 데 반하여 Chomsky(1986)의 θ -mark 설명은 동사의 의미 구조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좀 더 흥미있고 다소 진일보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θ -role의 정체가 막연하고 θ -mark된 \bar{S} 는 왜 장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명시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Chomsky의 θ -mark 설명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기껏해야 이 θ -mark 설명을 놓고 Chomsky에게 유리하도록 추측해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I found the cage empty."와 같은 구문에 관하여 Jespersen (1924:122)이 제시한 분석을 놓고 더 나은 추측을 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19) "It is usual here to say that *the cage* is the object and that *empty* is used predicatively of, or with, the object, but it is more correct to look upon the whole combination *the cage empty* as the object."

시대와 용어가 다르기는 하나 Jespersen의 견해는 Chomsky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Jespersen이 *the cage*가 object라고 말한 것을 *found*가 *the cage*에 (목적)격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the cage empty* 전체가 object라고 말한 것은 *found*가 [the cage empty]에 (patient) θ -role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empty*가 목적어 *the cage*에 대하여 술어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the cage empty]가 하나의 명제를 표현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Jespersen의 견해는 Chomsky의 그것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Jespersen에게 유리하도록(또는 Chomsky에게 유리하도록) 추측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Jespersen의 진술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여려고 할 때 곧 문제점에 부딪힌다. 가령 object라는 용어를 통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미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is used predicatively'라는 표현이 통사 현상을 설명하려는 말인지 의미 현상을 설명하려는 말인지도 불분명하다. 개념 정의와 진술이 명시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Jespersen의 언어 현상에 관한 폭넓은 관찰과 깊고 예리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법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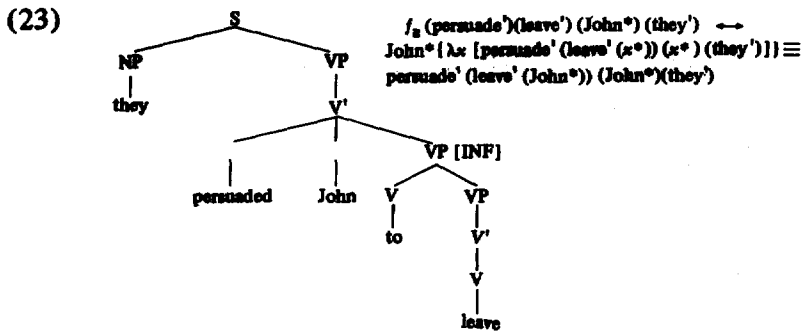
Chomsky의 θ -mark 설명도 정확히 어떤 경우에 무슨 θ -role을 부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명시적인 기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Chomsky(1981: 139)는 thematic role에 관하여 'agent'나 'theme'이니 하면서 두어 가지 예를 든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그것을 정의한 적도 없고 그것의 실례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없으며 무슨 동사가 무슨 θ -role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래에도 분명한 말이 없다. 다만 동사가 θ -role을 부여한다거나 부여할 수 없다거나 하는 말만 계속 할 뿐이다.

GPSG에는 thematic role에 대한 이론 장치가 없다. 그러나 함수 논항 관계를 의미 해석에서 정확히 정의해 주는 장치가 있어서 동사와 그 보어 (complement)와의 의미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각 어휘 범주와 구 범주에 고유의 의미 유형이 주어져 있고 이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부분들의 의미가 결합하여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단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면 *consider* 류 동사의 구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아가서 필자는 Chomsky의 분석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세 구조를 비교해 보자.

- (20) (= 1a) They consider John intelligent.
- (21) They believe John to be intelligent.
- (22) They persuaded John to leave.

Chomsky는 (20)과 같은 구문이 (21)의 *believe* 류 동사의 구문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20) 구문은 오히려 (22) *persuade* 구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의 의미 구조를 함수 논항 관계로 표현한 (13), (14), (15)를 다시 검토해 보자. *Consider*는 의미적으로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세 자리 술어 (three-place predicate)이다. 이 점이 *persuade* 류 동사와 같은 점이다. (22)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consider* 구문의 구조 (8)과 거의 같다.



* 임경섭 (1985) "영어 구조에 관한 일반 구구조 문법적 고찰" (『언어연구』 제 6권)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Chomsky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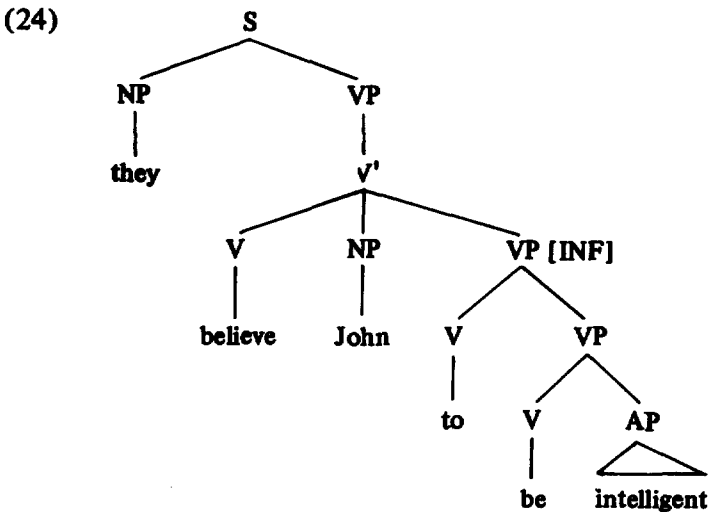
Persuade 류 동사의 어휘 유형은 〈VP, 〈NP, 〈NP, S〉〉〉로 주어지므로 (23)의 의미 해석은 *persuade* 다음에 VP [INF] 와 NP *John* 과 주어 NP가 차례로 결합된다. *Persuade* 라는 동사의 의미의 최초 대상은 ‘떠나다’ 는 것이고 ‘떠나도록 설득하는’ 대상은 *John* 이다. 그리고 떠나는 자는 *John* 이다.

Consider 의 의미도 이와 유사하다. ‘어떠하다고 본다’ 는 것이 *consider* 의 의미의 출발이다. ‘어떠하다’ 에 해당하는 AP가 *consider* 의미의 최초 대상이다. 그다음 ‘어떠하다고 본다’ 는 행위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consider* 가 취하는 둘째 논항이다.

Consider 의 뜻이 *think* 나 *believe* 등과 비슷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보다 또는 주의깊게 보다’ 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동사에 ‘보다’ 의 뜻이 있으므로 보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20)문장에서 *John* 이 바로 그 대상이다. *Consider* 의미의 또 한 부분은 *John* 을 보되 보는 때 그치지 않고 *John* 이 어떠한다고 본다는 상황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consider* 의 의미를 따져 보면 그것이 *persuade* 류 동사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believe* 류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두 자리 술어 (two-place predicate) 이다. 첫째 논항은 명제이고 둘째 논항은 주어에 해당한다. 예컨대 (21)의 의미는 ‘*John* 이 ‘intelligent’ 하다는 명제가 ‘believe’ 의 대상이고 ‘they’ 가 둘째 논항인 주어이며, 이로써 *believe* 의 의미 구조는 완성된다. 다음 (24)의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을 보라.



(25) f_R (*believe'*) (*intelligent'*) (John*) (they')

(26) *believe'* (*intelligent'*)(John*)(they')

(24)의 구조는 (23) *persuade*의 구조와 같고 *believe*와 *persuade*의 어휘 유형도 같다. (즉 <VP, <NP, <NP, S>>) 그러나 동사에 부여되는 semantic combinatoric이 다르다. (25)에서 보이듯이 f_R 이 나타난다. (25)의 *believe*는 f_R (*believe'*)로 의미 해석된다. 이 combinatoric은 소위 상승 동사 (raising verbs)에 주어진다. f_R 을 위한 의미 공준은 아래와 같다. (GKPS 1985 : 1985: 218)

(27) $V V V \mathcal{P}_1 \dots \mathcal{P}_n \square [f_R (\zeta) (V) (\mathcal{P}_1) \dots (\mathcal{P}_n) \leftrightarrow \zeta (V (\mathcal{P}_1)) \dots (\mathcal{P}_n)]$

(25)에 의미 공준 (27)을 적용하면 (26)을 얻는다.

*Persuade*와 *believe*는 complement 구조가 동일하므로 결국 이들 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의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동사의 의미 속성이 다르다. *Persuade* 류는 f_B (*persuade'*)로 해석되고 *believe*는 f_R (*believe'*)로 해석되므로 결국 논함을 취하는 양식이 다르다.

요약하면 *persuade*와 *consider*는 세 자리 슬어인 반면 *believe*는 두 자리 슬어이다. 전자는 그것이 뜻하는 행위의 대상과 명제와 행위의 수행자 등 세 개의 논함이 필요하고 후자는 명제와 행위의 수행자 등 두 개의 논함이 필요하다. 이 글의 서두에 *consider* 등은 *so* 대용어 대치가 불가능하고 *believe* 등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적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8) a. *I consider so too.

b. I believe so too.

*So*는 명제를 대신하는 대용어라고 보면 (28)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consider*는 대상과 명제를 요구하는데 (28a)에는 명제를 대신하는 *so*만 있으므로 (28a)는 의미적으로 불구이고 따라서 비문이 된다. 그러나 *believe*는 명제만을 요구하므로 *so*로써 *I believe so*는 의미적으로 완전하다.

GB 이론에서처럼 *consider*와 *believe*가 다 같이 명제 하나만을 요구하는 동사로 본다면 (28)의 현상을 설명할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IV

*Consider*의 보어로서 AP 이외에 NP, VP, PP 등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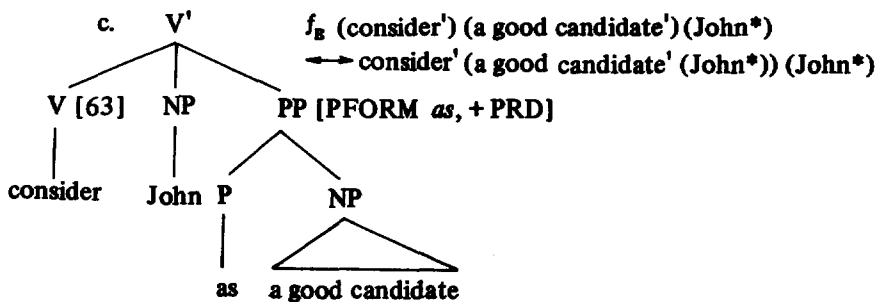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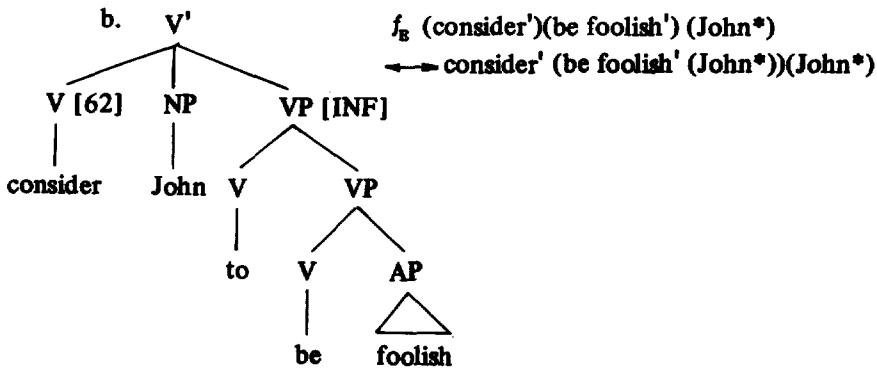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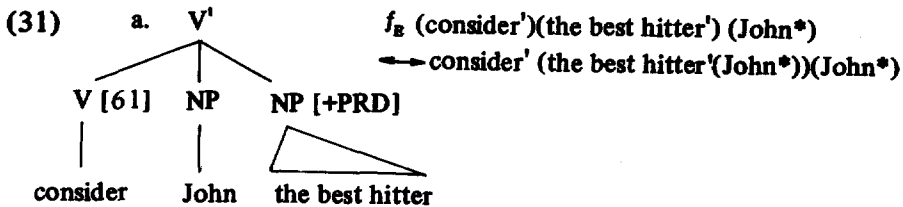
(29) a. They consider John the best hitter.

b. They consider John to be foolish.

c. They consider John as a good candidate.

GPSG에서의 동사의 하위범주화는 동사가 취하는 보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되므로 *consider*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보어를 취하면 네 가지 다른 하위범주화를 설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9)의 문장에 대하여 각각 아래의 직접 지배 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cf.(9))

- (30) a. $V' \rightarrow V [61], NP, NP [+PRD]$
- b. $V' \rightarrow V [62], NP, VP [INF]$
- c. $V' \rightarrow V [63], NP, PP [PFORM\ as, +PRD]$



하위범주화가 다르게 된 각 *consider* 구문의 통사 구조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의미 해석 방법은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31a)와 (31c)의 경우에 둘째 보어인 NP와

PP의 의미 번역이 [+PRD] (= predicative) 자필로 받미않아 함수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NP와 PP는 의미적으로 AP나 VP와 같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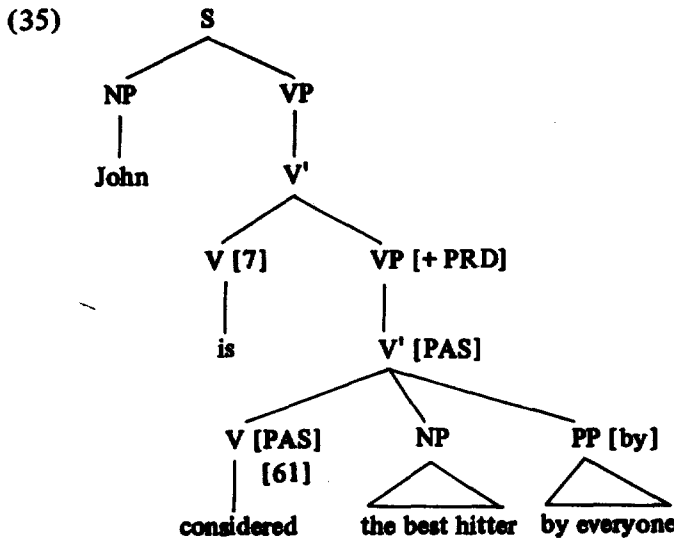
다음에 *consider* 구문의 피동태 구조를 살펴 보자.

(32) John is considered the best hitter by everyone.

이 피동태 구문은 다른 일반적인 피동태 구문과 다를 것이 없다. Passive Metarule에 의하여 아래 직접 지배 규칙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것이 *be* 동사를 도입하는 직접 지배 규칙 (34)와 상호 연결되어 수행도 (35)를 허용한다.

(33) $V' [PAS] \rightarrow V [61], NP [+PRD], PP [PFORM \textit{by}]$

(34) $V' \rightarrow V [7], XP [+PRD]$



피동태 동사 *considered* 는 *Equi* 동사이면서 동시에 피동 동사이므로 $f_E(\textit{consider}')$ 에 피동 동사를 위한 combinatoric f_P 가 첨가되어 $f_P(f_E(\textit{consider}'))$ 로 의미 번역 된다.

- (36) a. $f_P(f_E(\textit{consider}'))(\textit{the best hitter}')(\textit{every one}')(\textit{John}^*)$
- b. $f_E(\textit{consider}')(\textit{the best hitter}')(\textit{John}^*)(\textit{everyone}')$
- c. $\textit{John}^* \{ \lambda x [\textit{consider}' (\textit{the best hitter}') (x^*) (x^*) (\textit{everyone}')] \}$
- d. $\textit{consider}' (\textit{the best hitter}' (\textit{John}^*)) (\textit{John}^*) (\textit{everyone}')$

(36a)와 (36b)는 피동태 의미 공준에 의하여 연결된다. 그 이하는 앞에서 설명한 것

과 같은 과정이다.

다음에는 허사 *it* 과 *there* 와 관련된 구문을 고려해 보자. (Chomsky (1981) 에 이리한 구문을 몇 가지 예문과 더불어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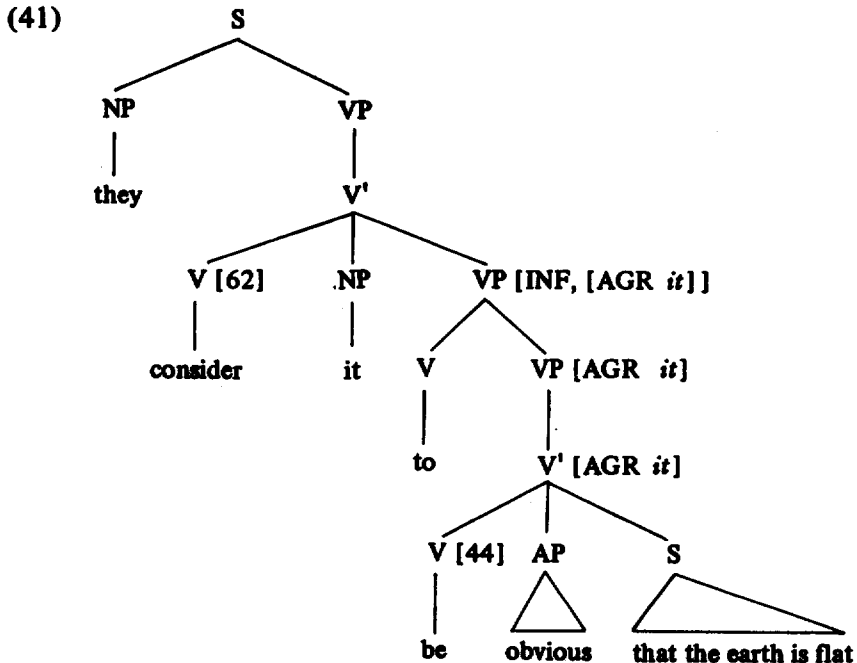
- (37) a. They consider it obvious that the earth is flat.
 b. They consider it to be obvious that the earth is flat.
- (38) a. *They consider there be a flaw in the argument.
 b. They consider there to be a flaw in the arg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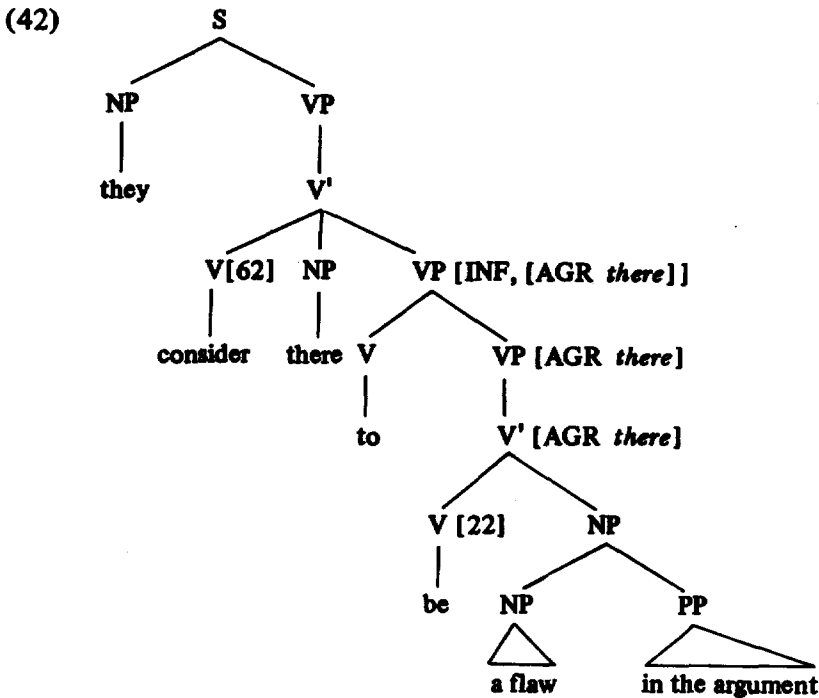
(37b)와 (38b) 구문의 분석에는 어려움이 없다. *it* 과 *there* 와 관련된 *be* 동사를 도입하는 직접 지배 규칙이 각각 아래와 같다.

(39) $V' [AGR NP [NFORM it]] \rightarrow V [44], AP, S$

(40) $V' [AGR NP [NFORM there, \alpha PLU]] \rightarrow V [22], NP [\alpha PLU]$

(37b)와 (38b)의 구조는 각각 아래 (41), (42) 와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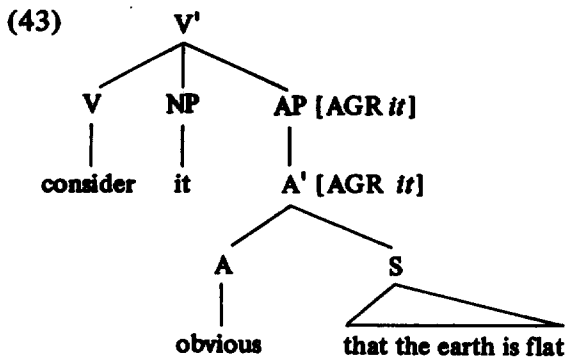




Control feature 인 AGR 자질은 통제 일치의 원리 (Control Agreement Principle; CAP)의 통제를 받는다. V'의 AGR은 직접 지배 규칙 (39)로부터 상속 (inherit)된 것이고 V'를 지배하는 VP와 그 VP를 지배하는 VP에 있는 AGR은 CAP에 의하여 구현 (instantiate)된 것이다. *Consider*를 지배하는 V가 머리 딸인 국부 수형도에서 *consider*의 어휘 유형이 < VP, < NP, < NP, S >>이므로 둘째 NP에 해당하는 NP *it*이 controller (통제자)가 되고 VP [INF]가 target (일치 표적)이 된다. 이 상황에서 CAP는 target 안의 AGR 자질의 자질 값은 controller *it*이 된다고 규정한다.

구조 (42)에서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22)번으로 하위범주화 분류된 *be* 동사의 AGR의 자질 값이 NP [NFORM *there*] 이어서 그 주어 (또는 controller)가 오로지 *there*가 되는 점이 (41)의 경우와 다른 전체적인 구조와 CAP의 적용 방식 등이 (41)과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37a)와 (38a)문장이다. 여기에는 *be* 동사가 없기 때문에 AGR 자질을 다루기가 일차적으로 곤란해 보이지만 *obvious, certain* 따위의 형용사가 [AGR NP [NFORM *it*]]을 취한다고 보면 이것도 큰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다. 즉 A' [AGR NP [NFORM *it*]] → A [108], S과 같은 직접 지배 규칙을 세우면 (37a)의 *consider*가 포함되는 국부 수형도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의 문제점은 (37a)와 (37b)의 구조를 아주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37b)에서는 *consider*의 보어가 NP와 VP [INF]이고, (37a)에서는 그것이 NP와 AP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NP가 *it*이 되도록 강요하는 과정도 양자의 경우 서로 다르다. (37b)의 경우에는 *be*동사의 성질로 말미암아 *it*이 나타나게 되는데 (37a)의 경우에는 *obvious* 등 형용사의 성질 때문에 *it*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을 제시할 수 없으나, 대안으로서 (37a)와 (37b)를 문체적 변이형이라고 보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 말하자면 (37)과 (38)에서 “to be”를 생략하는 문체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여기서 깊이 고려할 수는 없고 앞으로 생각해 볼 과제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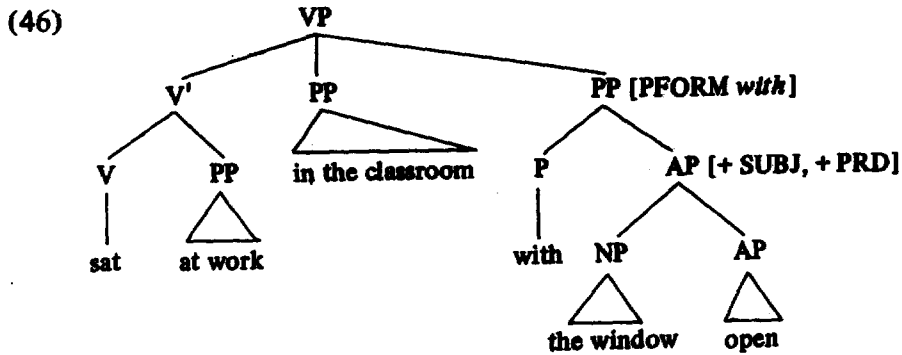
끝으로 *with*와 같이 쓰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고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 (44) a. I sat at work in the classroom, with the window open.
 b. She sat, (with) her hands crossed on her lap.

이러한 *with* 절은 주동사의 하위범주화와는 무관하므로 단순히 수식적인 부가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술부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주는 AP, VP [PAS], VP [PRP], PP 등 이므로 XP [PRD]에 해당한다. 실제로 *be*동사의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with* 절의 술부에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with* 절을 도입하는 직접 지배 규칙을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45) PP [PFORM *with*] → P, XP [+SUBJ, +P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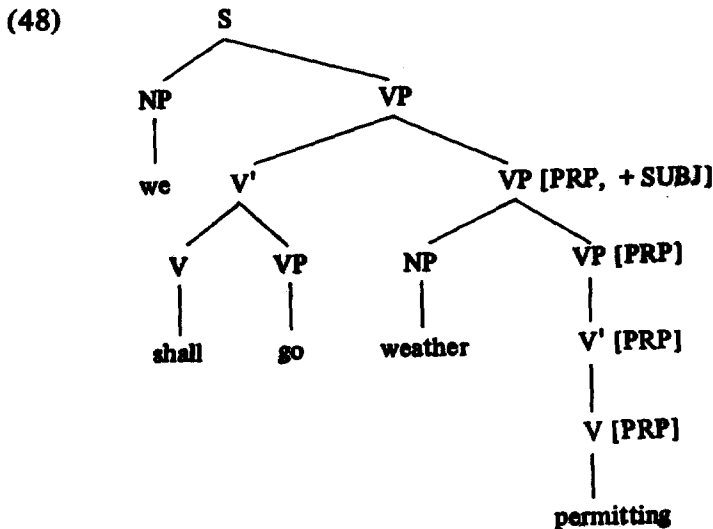
그러면 (45a)의 동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런 *with* 절 분석을 다소 확장시키면 아래와 같은 소위 분사 구문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

- (47) a. We shall go, *weather permitting*.
- b. *Everything considered*, we may feel quite easy.
- c. *This done*, he shut the window.

가령 (47a)의 구조를 다음처럼 분석할 수 있다.



AP [+PRD, +SUBJ] 나 VP [PRP, +SUBJ] 는 <SUBJ, +> 자질을 가진 AP 또는 VP이니 이는 곧 S와 같다. 그리하여 이 S가 *with* 를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S의 의미에 시간, 이유 등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는 화용론 또는 의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with* 절이 앞에서 논의한 *consider* 류 동사의 보문 구조와는 통사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다. *Consider* 류 동사의 보문 구조는 NP와 AP이든 NP와 VP이든 NP와 PP이든 그것이 구성 성분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with* 절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며 나아가서 그것은 S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문미도 되고 문두도 되는 등 융통성이 있다.

- (49) a. With the door open, I sat at work in the classroom.
 b. With her hands crossed on her lap, she sat.

따라서 이들 구조는 *consider* 류 동사의 보문 구조와는 완전히 구별해서 다루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을 *small clause* 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nsider* 류 동사의 보문 구조는 *small clause* 가 아니다.

GB이론에서는 *small clause* 라는 개념을 수립하여 *consider* 류 동사를 다루고 있으나 필자가 이 논문에서 증명하고자 한 것은 *small clause*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그 증명은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보여지며 *small clause* 라는 개념은 통사론적 현상과 의미론적 현상을 혼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데서 오는 오류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GPSG에서는 의미론과 통사론의 분업의 경계를 뚜렷이 하고 의미 현상은 의미 해석에서, 통사 현상은 통사론에서 다룸으로써 *consider* 류의 동사와 관련된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를 둘 다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PSG는 Move- α 따위의 변형규칙, 그와 관련된 각종의 제약들 (*constraints*),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와 논리 형식의 개념, PRO나 흔적과 같은 추상적인 요소 등등 어느 것도 가정할 필요없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일 계층의 (*single level* 또는 *monostratal*) 통사 이론으로도 이들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참 고 문 헌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Chomsky, N. 1986. *Barrier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3.
 Gazdar, G., E. Klein, G. Pullum, & I.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 Unwin.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4. ed. by J. Kimball.
 Academic Press.